

강심장 물려준 부모·'보배'로 키워준 스승



30일 새벽 신궁 기보배의 모교 광주여대에서 열린 런던올림픽 여자 양궁단체전 응원전에서 기보배의 부모와 학생들이 금메달이 확정되자 기뻐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양궁 금메달 기보배를 만든 사람들
기동연씨 “딸 믿으니 떨리지 않더라”
광주여대 김성은 감독이 발탁해 지도



김성은 감독

“보배야 고맙다. 수고했어.”
올림픽 무대에서 금메달을 딴 자랑스러운 딸에게 어머니가 가장 먼저 해주고 싶은 얘기가였다.
30일 새벽 기보배의 마지막 화살이 금메달을 명중시키자 기보배의 모교인 광주여대에서 애라는 심정으로 경기를 지켜보던 아버지 기동연(63)씨와 어머니 김남연(58)씨는 서로 얼싸안으며 기쁨을 나눴다.
어머니 김씨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경기를 지켜봐서 떨리지는 않았지만 보배가 마지막까지 잘해줬다. 외모만큼이나 보배가 내 강심장을 닮았다”며 환하게 웃었다.

아버지 기씨는 “대회에 나가면 신경 쓰일까봐 전화도 하지 않는다. 평소 소에 통화를 할 때 내가 ‘아버지’라고 하면 보배가 ‘땀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반대로 얘기 해주어야 했다.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 즐겁게 통화를 해야겠다”며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좋은 결과를 내줘서 고맙다”고 기쁨을 전했다.
기보배의 마지막 화살을 에타게 지켜본 또 한 사람이 있다. 광주에서 제2의 양궁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끈 김성은(39) 광주여대 양궁부 감독이다. 김 감독은 안양 성문고 출신의 기보배를 발탁한 인물이다. 고교 시절 빛을 발휘하지 못했던 기보배는 김 감독의 지도 속에 아버지의 고향인 광주에 와서 제2의 양궁인생을 시작했다. 그리고 태극마크를 달고 올림픽 무대까지 밟게 됐다.
결승전이 진행되는 동안 김 감독은 자리에도 앉지 못한 채 연거푸 물만 들이켰다. 굵게 쏟아진 비 때문에 기

보배의 첫발이 빨간 과녁에 꽂히자 안타까움 탄식을 내지른 김 감독은 기보배의 한발 한발에 주먹을 불끈 쥐기도 하고 또 아쉬움에 고개를 숙이기도 하면서 제자의 첫 올림픽 무대를 지켜봤다.
그리고 마지막 한발, 기보배가 쏘아올린 결승전 마지막 화살이 9점에 박히자 기쁨의 탄성과 함께 눈시울을 붉혔다. 김 감독에게는 제자가 선출한 두 번째 올림픽 금메달이다.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 여자양궁 단체전 6연패를 이루어낸 주현정도 광주체고 시절 제자다.
김 감독은 “보배는 긴장을 즐기는 선수다. 날씨가 좋았다면 이런 접전 없이 수월하게 금메달을 땀은 것이다. 하지만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날씨와 환경에 빨리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개인전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밝혔다.
가장 가까이에서 기보배의 우승을 지켜본 박채순(47) 여자 양궁 대표팀 코치도 기보배의 오늘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광주시청 감독으로 기보배와 호흡을 맞춰왔던 박 코치는 예상 밖의 접전 상황에서 선수단을 독려하며 금메달의 감격을 함께했다.
/김여용기자 wool@kwangju.co.kr



“부담스러웠지만 떨리지는 않았어요”

■ 기보배 인터뷰

한국 여자양궁 대표팀의 에이스 기보배(24·광주광역시청)는 29일(현지시간) 금메달을 따고 난 뒤 “선배들의 업적 때문에 부담스러웠다”고 털어놓았다.
한국 여자양궁은 이날 영국 런던의 로즈 크리켓 그라운드에서 열린 단체전 결승에서 중국을 꺾고 대회 7연패의 위업을 이뤘다. 기보배는 “6연패

뒤에 있는 것이 이렇게 부담스러울지 몰랐다”며 “금메달을 따고 나서야 영광이라는 생각이 들고 선배들이 고마워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기보배는 이날 경기에서 승리를 장식하는 마지막 24번째 화살을 쏘았다. 한국이 마지막 한 발을 남기고 201~209에서 9점을 쏘면 이기고 8점을 쏘면 한 발로 승부를 가르는 연장전 쏠오프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기보배는 긴장된 마지막 순간에도

전혀 떨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 발을 쏘려 들어갈 때 하던 대로 하면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아무 생각 없이 대범하게 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기보배는 “던던에 오기 전에는 단체전 금메달만 따도 소원이 없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그런 마음을 마지막까지 지켜 육심 내지 않고 후회 없는 경기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기보배 마지막 한발 금과녁 명중

■ 女양궁 우승 순간

한국이 여자양궁 단체전에서 올림픽 7연패의 위업을 이뤘다.
한국은 2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로즈 크리켓 그라운드에서 열린 런던올림픽 결승전에 기보배(광주광역시청), 이상진(전북도청), 최현주(창원시청)가 출전해 중국을 210~209로 꺾었다.
이로써 한국은 1988년 서울, 1992년 바르셀로나, 1996년 애틀랜타, 2000년 시드니, 2004년 아테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이어 대회 7연패를 달성했다. 한국은 1988년 서울 대회에서 단체전이 도입된 이후 여자부에서 한 차례도 타이틀을 놓치지 않았다.

결승전 시작 직전부터 폭우가 쏟아졌지만 ‘태극 남자’들의 기술과 집중력이 빛난 한판이었다.
한국은 첫 세 발을 7점, 8점, 6점 과녁에 맞춰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청밍, 수징, 평위팅이 차례로 나선 중국도 첫 세 발이 8점, 7점, 8점에 그쳤다.
그러나 한국은 바로 ‘오조준(誤照準)’에 적응하며 1엔드에 남은 세 발을 9점, 9점, 10점에 꽂아넣었다. 중국은 에이스 청밍이 10점을 쏘았으나 수징과 평위팅이 7점에 맞춰 한국에 2점 차로 뒤졌다.
빛줄기가 가늘어지자 양상이 바뀌었다. 중국은 집중력을 되찾아 추격을 시작했고 한국은 2엔드를 중국과 똑같은 102-102로 마쳤다. 후반전인 3엔드가 시작되면서 비가 그쳤다.

해결사로 나선 것은 대표팀의 만연히 최현주였다. 최현주는 3엔드부터 4엔드 초반까지 세 발을 연속으로 10점 과녁에 꽂아넣어 한국이 근소한 리드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마지막 세 발을 남기고 한국은 중국에 184-182, 2점 차로 앞섰다.
중국은 9점, 9점, 9점을 쏘아 209점으로 경기를 마쳤다. 한국은 이상진이 9점을 쏘았으나 2엔드부터 5차례 연속 10점을 쏜 최현주가 뒷박에 8점에 그치고 말았다.
마지막 한 발이 9점을 쏘면 이기고 8점을 쏘면 연장전 쏠오프를 끌러가야 하는 긴장된 순간이 왔다. 기보배가 차분하게 사대에 올라 날린 화살이 9점 과녁에 꽂혀 한국은 210-209로 짜릿한 승리를 누렸다.
/연합뉴스

李대통령·姜시장 축전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2012 런던 올림픽에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한 여자 양궁 선수와 지도자들에게 축전을 보냈다.
이 대통령은 여자 양궁 단체전 선수들에게 “이번 우승으로 한국 여자 양궁은 올림픽 7연패라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세웠다”고 찬사를 보냈다.
강운태 광주시장도 이날 축하 성명을 통해 “기보배 선수는 광주시청 소속이자, 광주의 딸로 그 기쁨과 의미가 남다르다”며 “148만 광주시민과 함께 기뻐하며 아낌없는 찬사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한편, 광주시는 기보배가 두 번째 금메달 사냥에 나서는 양궁 여자 개인전이 열리는 다음달 2일 시민과 체육계 관계자, 학생 등이 참여하는 응원전을 개최할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인간을 발견하는 인간 문명을 창조하는 문명 ‘대학 교육’의 목적입니다

대학 교육의 꽃은 ‘교양’입니다. 자신을 성찰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인간과 문명의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는 능력이 ‘교양’입니다. 2011년, 4년여 준비과정 끝에 설립된 경희의 교양 대학 후마니타스칼리지가 인간의 길, 문명의 길, 평화의 길을 열어갑니다.

인간, 세계, 문명을 위한 범학제간 교육

후마니타스칼리지는 중핵교과를 통해 인간, 세계, 문명을 성찰하는 능력을 키웁니다. 배분 이수 교과는 융복합적 사고와 대인적 사유능력을, 시민교육과 글쓰기, 외국어 교과는 21세기를 열어갈 세계시민의 안목과 역량을 키웁니다. 지구적 연민을 실천하는 탁월한 개인과 책임 있는 시민을 키우는 것이 후마니타스칼리지의 목표입니다.

스스로 문제를 찾는 창의적 시민교육

후마니타스칼리지 시민교육은 강의실 밖에서 더 많은 것을 찾아 나섭니다. 학생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해결 방법을 모색하며, 그 실천을 위해 현장 활동에 나섭니다. 학생식당에서부터 지구촌 인권 문제까지, 통일에서 다문화 가정까지 학생들의 문제의식과 관심사는 다양합니다. 이들을 통해 후마니타스칼리지는 더 나은 인간과 세계를 꿈꾸고, 새로운 문명을 상상합니다.

- 경희의 미래, 인류의 미래
- 1 후마니타스칼리지
 - 2 경희 미래융합
 - 3 Vanguard 21
 - 4 Peace BAR Festival
 - 5 경희 학술문화 2020
 - 6 온·오프라인 창조적 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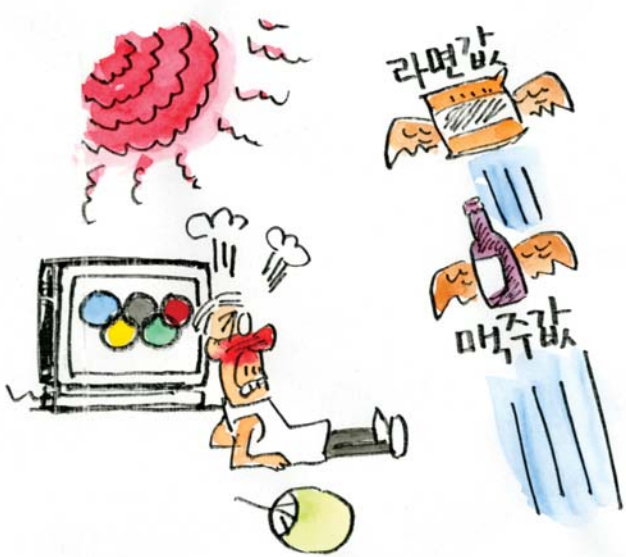
2013학년도 수시 신입생 모집 행사일지 입학시정편견: 8.16(목)~22(수) 기타전형: 9.3(월)~8(토)

▲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앞 모교상



빛의 만평

- 김종두



분위기 확 갠다